

# 유럽축구 새시즌 본격 개막...주말 태극전사 기상도 '맑음'

황희찬부터 이승우까지 7골 '폭발'  
이재성, 경기 최우수선수 뽑히기도  
'유럽과 선배' 손흥민만 개막전 침묵  
이강인, ESPN 주간 베스트11 선정

새 시즌 유럽축구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주말 해외와 태극전사들의 골 폭풍이 초반부터 거세다.

지난 주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뜨거웠다. 황희찬(라이프치히)을 시작으로 이승우(인트라위터)까지 무려 7골이 터졌고, '멀티 도움'을 달성한 이강인(발렌시아)까지 가세하며 총 10개 공격 포인트(10골 3도움)가 쏟아졌다.

출발은 독일 무대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이었다.

지난 12일(한국시간) 열린 뉘른베르크(2부 리그)와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64강)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라이프치히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데뷔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유수프 폴센의 추가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45분에는 썬기골까지 터트리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

오스트리아 무대를 평정하고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은 첼시로 이전한 티모 베르너의 대체자란 부담에도 첫 경기부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하며 울리

안 나겔스만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황희찬 활약에 반한 라이프치히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르너의 완벽한 대체자", "첫 경기 1골 1도움은 환상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분 좋은 출발을 한 황희찬은 20일 오후 10시30분 홈구장인 레드불 아레나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2020~2021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홈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분데스리가는 새 시즌 수용 규모의 2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독일 컵 대회 골 폭풍은 이재성과 권창훈으로 이어졌다.

분데스리가2(2부 리그) 소속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이 포칼 1라운드 리엘라겐-아를렌(5부 리그)과 경기에서 전반만 뛰고도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의 7-1 대승을 지휘했다.

이재성은 경기 최우수선수(MOM)로 뽑히며, 새 시즌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이재성은 울머를 새 팀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선택지를 찾지 못하면서 킬에서 잔여 시즌을 소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의 권창훈은 14일 포칼 1라운드 발트호프 만하임(3부 리그)을 상대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전반 19분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갈랐다.

지난 시즌 부상과 부진이 겹쳐 제 역할을 못했던 권창훈에게 최고의 출발이다.

또 프라이부르크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황희찬



이승우

정우영은 바이에른 뮌헨 2군 임대를 마치고 돌아와 첫 경기부터 풀타임을 소화하며 달라질 새 시즌을 예고했다.

프랑스 리그에서도 골 소식이 들려왔다. 주인공은 석현준이다.

그는 13일 프랑스 리그2(2부 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7분 페널티킥 결승골로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시즌 프랑스 프로 선수 중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석현준은 완치 후 새 시즌 초반부터 득점포를 가동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벨기에에선 이승우가 아직 1년여 만에 감격적인 데뷔골에 성공했다.

이승우는 14일 주빌리외 5라운드 엔트워프와 홈 경기에서 데뷔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기록하며 필살기를 날렸다.

인트라위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방향하던 이승우는 새 시즌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마침내 마수걸이 골까지 터트리며 부활을 알렸다.

유럽과 '선배' 손흥민(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아쉽게도 골 사냥에 실패했다.

에버턴과 홈 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활발한 돌파와 슈팅으로 시즌 첫 골을 노렸지만, 팀의 0-1 패배를 막진 못했다.

특히 전반 32분에는 역습 찬스에서 해리 케인이 아닌 델리 알리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를 제공했으나, 알리의 슈팅이 빗나가며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손흥민의 아쉬움은 열아홉 살 유럽과 '막내' 이강인이 달랐다.

이강인은 14일 레반테와의 홈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와 전반에만 도움 2개를 기록하며 발렌시아의 4-2 역전승을 도왔다.

지난 시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소속팀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적을 추진했던 이강인은 구단주와 새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첫 경기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19세207의 나이로 한 경기 '멀티 도움'을 세운 이강인은 후반 마타(맨유·20세150일)를 제치고 21세기 이후 발렌시아 정규리그 한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한 최연소 선수가 됐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6일 '유럽 주간 베스트11'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레반테)와 함께 4-4-2 포메이션의 최전방 투톱으로 선정했다.

유럽 베스트11에는 이강인을 비롯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윌리안(아스널) 등이 뽑혔다. 뉴시스

## 임성목, 스릭스투어 11회 대회서 첫 우승

프로 데뷔 첫 홀인윈도

임성목(19)이 2020 스릭스투어 11회 대회(총상금 8000만원)에서 홀인윈을 기록하는 등 프로 데뷔 첫 승에 성공했다.

임성목은 지난 15, 16일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컨트리클럽 라고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임성목은 "우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마지막 날 타샷이 흔들렸다. 다행히 쇼트게임이 좋아挽回할 수 있었다. 항상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대섭 프로님께 이 자리를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12번홀 홀인윈 상황에 대해서는 "앞바람이 불고 있었고 5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다.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가서 두 번 튀어 구르더니 사라졌다. 홀인윈으로 확신했다. 아마주어 시절 1번 홀인윈을 한적이 있다. 프로 데뷔 후에는 처음 성공한 홀인윈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성목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한 배장원도 12번홀에서 임성목에 이어 홀인윈을 기록하는 등 진귀한 광경이 나오기도 했다.

12세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임성목은 2018년 '일송배 제36회 한국주니어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 KPGA 프로(준회원), 8월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했고 지난해 'KPGA 코리아 투어 QT'에 응시해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현재 시드 대기자 신분인 임성목은 아직 한



차례도 KPGA 코리아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현대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임성목은 "꿈에 그리던 KPGA 코리아 투어에 첫 출전하게 돼 설렌다. 홀인윈과 우승의 좋은 기운을 현대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1차 목표는 킷폼과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임성목은 2020 스릭스투어 상금순위는 11위(1600만원), 통합포인트는 14위(1만6400P)로 올라섰다.

2020 스릭스투어는 모든 대회가 종료된 뒤 스릭스포인트 상위 10명에게 2021년 KPGA 코리아 투어의 출전권을 부여한다.

## 올해 MLB 첫 포스트시즌 진출팀 'LA 다저스'

35승15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잔여 10경기 관계없이 확정

LA 다저스가 2020 메이저리그(MLB) 첫 포스트시즌 진출팀이 됐다.

다저스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0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7-5로 이겼다.

35승15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킨 다저스는 남은 10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다저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60경기짜리 초미시 시즌의 첫 포스트시즌 진출

팀으로 이름을 남겼다.

또한 다저스는 8년 연속 가을야구 초대장을 확보하면서 강팀의 면모를 입증했다. 남은 경기에서 6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다.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기존 10개팀에서 16개팀으로 늘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3개 지구 1,2위팀과 이들을 제외한 팀들 중 승률이 높은 4개팀(NL 2개팀·AL 2개팀)이 가을야구에 참가한다.

16개팀이 3전 2선승제의 1라운드를 치르고



승리팀이 5전 3선승제의 디비전 시리즈를 갖는다. 남은 4개팀이 7전 4선승제의 리그 챔피언십으로 생존을 결정하고, 마지막 2개팀이 7전 4선승제의 월드시리즈로 트로피의 주인을 가린다.

포스트시즌은 30일 막을 올린다. 월드시리즈는 10월21일부터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개최된다.

## LG 박용택, KBO리그 최초 2500안타 기록 '눈 앞'

16일까지 개인통산 2495개

올해 끝으로 현역 생활 마감

올해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감하는 LG 트윈스 베테랑 타자 박용택이 2500안타라는 또 하나의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

박용택은 지난 16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3안타를 몰아쳐 개인통산 안타를 2495개로 늘렸다.

2018년 6월23일 양준혁의 2318안타를 뛰어 넘어 KBO리그 최다 안타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박용택은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2500안타를 코앞에 뒀다.

일찌감치 시즌 후 은퇴를 예고한 박용택은 6월 51타수 20안타 월간 타율 0.392로 베테랑의 품격을 뽐냈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내야안타를 치고 1루로 뛰다 험스트링 부상을 당해 50일간 1군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1군 복귀 이후 주로 대타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박용택은 9월 타격 사이클이 상승하며 2500안타에 바짝 다가섰다.

역사의 시작은 2002년 4월16일 SK 와이번스전이었다. 2루타로 데뷔 첫 안타를 때린 박용택은 2009년 1000안타, 2013년 1500안타, 2016년 2000안타를 차례로 달성했다. 2207경기에 출전 중인 박용택은 정성훈이



보유 중인 타자 최다 출장 기록인 2223경기도 넘어설 전망이다.

KBO는 박용택이 2500안타를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 김수녕·선동열·조오련 등 스포츠영웅 지지도 조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오는 18일부터 10월18일까지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에 관한 국민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최종후보자 4명은 '20세기 최고의 공사' 김수녕(양궁),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야구),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수영),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마라톤)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9일 제1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위원, 체육단체, 출입기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영웅 선정에 관한 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와 체육인단 및 추천기자단의 최종후보자 추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

이번 국민 지지도 조사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네이버 메인 팝업창 또는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투표창(http://hero.sports.or.kr/2020vote)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

된다. 참여한 국민들 중 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의 정성평가(70%)와 국민지지도 조사(30%) 결과를 합쳐 최종 선정되며,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현역된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스포츠를 통해 선수 및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육인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해 예우하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2011년 허신기정(마라톤), ▲2013년 허서윤복(마라톤), ▲2014년 허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2017년 차범근(축구), ▲2018년 허길일(프로레슬링), 김진호(양궁), ▲2019년 엄홍길(산악)이다.

## FA컵 4강 미디어데이, '유튜브 라이브' 진행

FA컵 4강전 23일 진행...전북·성남, 울산·포항 맞대결

대한축구협회(KFA)가 2020 하나은행 FA컵 라이브E 인터뷰 'FA'생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FA'생방'은 오는 23일 FA컵 4강전을 앞두고 열리는 일종의 찾아가는 미디어데이다.

기존에는 4강에 진출한 팀의 감독, 선수, 기자단이 축구회관에 모여 미디어데이를 가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디어데이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최소한의 촬영 인원을 활용해 KFA에서 새롭게 만든 포맷이다.

KFA TV가 FA컵 4강 진출팀인 전북 현대와 성남FC,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 직접 찾아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KFA 출입기자단과 팬들이 KFA 소셜미디어(SNS)에 남긴 질문에 참가팀 감독과 선수가 직접 답을 한다.

17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전북편이 진행되며 모리스 감독과 한교원, 손준호가 참가한다.

18일 오전 10시에는 김기갑 감독과 최영준, 송민규가 참가하는 포항편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도훈 감독과 이철용, 원두재가 참가



하는 울산편이 진행된다.

21일 오후 2시 30분에는 김남일 감독과 김영광, 나상호가 참가하는 성남편을 볼 수 있다.

FA컵 4강전은 23일에 펼쳐진다. 전북과 성남이 오후 7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하고, 울산과 포항은 오후 7시30분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만난다.